



첼로와 가야금 협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우파, 투바까지 거대한 러시아 연방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공연예술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 슬로바키아, 대만 등에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무엇보다 가장 전통적인 지역 전북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술이 결합한 첨단 의 새로운 공연 형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올해 축제의 주제이자 개막공연의 제목인 '있다'의 의미를 충실하게 만끽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 위의 노래 / 9월 17일(목) 18:20 / 전주MBC 생방송**

올해 축제의 모티브인 현악기와 소리 축제가 그동안 지향해 온 전통을 기반으로 한 기획 프로그램의 핵심이 이 공연 속에 녹아든다. 올해 축제의 주제 의식과 차별점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야금과 거문고 연주자가 한 팀을 이룬 '달음'



독일 '세바스티안'

가야금과 거문고 연주자가 한 팀을 이룬 '달음'은 탈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탈'(TAL)이라는 곡을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판소리, 장구, 거문고, 대금, 피리, 아쟁 등 20여 명의 전통악기 연주자와 소리꾼이 출동해 현악기 중심의 전통 즉흥 시나위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미리 보는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난 7월 16일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미디어-온라인 특별기획 5選'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IT 기술과 접목해 실시간 해외 콜라보를 진행, 차별화된 미디어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몇 년 사이 소리 축제의 개막공연은 집단 즉흥에 가까운 '월드 시나위'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면서, 일종의 소리 축제만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의 배경 속에서 탄생한 악기와 음률, 리듬, 연주기법 등을 어떤 질서와 차례에 맞추고 플롯을 짜, 하나의 완성된 음악으로 보여줄 것인가는 능숙한 작·편곡 능력과 연출, 무대 기술팀과 오랜 호흡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해외팀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합주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IT 기술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최소 0.2초의 트래픽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온라인 콜라보'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소리 축제는 기술적 한계, 현실적 문제를 음악적 보완(



폴란드 '아누스 프루시놉스키 콤파니아'

작·편곡의 묘)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올해 축제가 대폭 축소된 비대면 형태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관심과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코로나19 앞에서 새로운 길,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소리 축제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 화제의 중심에 있는 개막공연과 함께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을 소개한다.

**개막공연 / 온라인 월드 시나위 '있다' / 9월 16일(수) 19:40 / 전주 KBS 생방송**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대만 등 해외 13개국 9개 지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특별 시나위 팀과 온라인 합동 공연을 펼친다. 특히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스페인 '비규엘라'



러시아 '에세퀸텐'

**폐막공연 / '전북청년 음악열전' / 9월 20일(일) 15:00 / JTV 생방송**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시끌벅적 뜨거운 난장이 펼쳐진다.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을 통해 매년 주목받는 신예 소리꾼들을 소개해 온 소리 축제. 올해 폐막공연에서는 이들 젊은 소리꾼 5명을 필두로 전통음악, 락, 클래식 등 장르를 불문한 즉흥 시나위 공연을 선보이며 침체한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판소리 다섯바탕의 주요 대목을 새롭게 편곡한 곡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60여 명의 출연진이 커다란 음악적 흐름 속에서 스스로 포지션을 찾아가며 전통 시나위의 즉흥성을 새로운 음악적 질서로 재편해낸다.

이밖에 KBS 한국인의 노래 앙코르 로드쇼와 CBS와 함께하는 별빛콘서트가 온라인 공연(페이스북, 유튜브 라이브)으로 준비된다.

또 전라북도 초·중·고교 찾아가는 소리 축제는 상호 협의가 된 일부 학교만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 축제 20주년을 맞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계의 변화를 앞둔 올해의 '실험'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